

지난 수십 년간
오직 고객만을 위해 날아온
두 항공사가 만납니다

이륙의 순간마다
새롭게 준비하는 다짐으로

고객의
더 안전하고
더 편안한 비행을

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
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

다시. 처음의. 마음으로

